

한·중 수교와 양돈산업



김정주 교수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1978년 덩소평의 등장과 함께 폐쇄적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점차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49년 이래 양국 관계가 단절되어 일체의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몇년전 부터 사회주의 이념의 퇴색과 함께 서서히 접근을 시도해 온 나머지 1992년 8월 24일 역사적인 수교가 이루어 졌다.

그런데 정치 외교적으로나 수출 전략상으로는 한·중수교가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모르나 그렇지 않아도 수입 개방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야 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1978년 이후 중국은 인민공사를 점차 해체하고 농업의 「생산청부제」를 도입, 개별 생산체제를 채택함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이 고취되어 농업생산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가격이 우리농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크게 위협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공산품 수출에 대한 반대 급부로 농산물을 포함한 1차 산품의 수입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총 교역량을 보면 1979년에 19만달러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91년에는 44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수출보다는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2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관계로 신선 농산물까지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다.

한·중 수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농·축산물 수입이 자유화 되더라도 고도의 신선도가 요구되는 채소 및 과일, 음용유(마시는 우유)등은 국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

배적이었다. 그러나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중국의 비교우위가 높고 이에 대한 우리의 수입수요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채소 및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의 생산도 결코 안전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둥성은 중국내에서도 농업이 가장 발달된 곳으로 산둥성의 항구도시 위해시(威海市)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는 선편으로 불과 17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신선 농축산물을 수출하기에는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특히 농축산물 중에서도 돼지고기의 생산이 어느 농축산물에 비해도 월등히 앞서 있다. 그만큼 중국인의 식습관이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일 것이다. 1990년 중국에서는 3억마리의 돼지를 도축하여 2,280만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중국의 총 인구 11억4,300만명을 고려하여 1인당으로 계산한 결과 19.9kg이 되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11.8kg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중국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그 생산의 증가는 시간문제 일 것이므로 인접해 있으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우리에게 돼지고기 수출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같은 육류라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같은 해 도축수 1,080만두에서 125만톤의 쇠고기를 생산, 돼지고기 생산량의 5.5%에 지나지 않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중국의 돼지 생산 규모를 보고 겁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 중국의 양돈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단편적 정보에 의존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연구진을 파견,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아직도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통계는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작업은 더욱 필요하다. 우선 중국을 연구함에 있어 유념할 것은 중국을 결코 한 나라로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 하나만 보더라도 인구가 7,770만명이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일단 면밀한 관찰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침투할 여지가 보일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 우리의 발전된 양돈기술 전수와 관련하여 종돈을 수출한다거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저렴한 중국 노동력을 확보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광활한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사료의 생산에서 부터 시작하여 사육, 도축까지를 포함한 양돈생산 기지를 중국에 설치하는 일 등이다.

필자의 두번에 걸친 중국여행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는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중국측에서도 이러한 협력을 갈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의욕만 가지고 시작한 나머지 고전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12억 중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도 미구에 GATT의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제농산물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만큼 우리 농업의 입장은 난처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게는 우르과이라운드에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이 중국의 출현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